

# 종교수도론 안에서의 삼요체 의미구조

- 誠을 중심으로 -

尹起鳳\*

目次	
I. 序論	2. 栗谷의 修養論에 있어서의 誠
II. 中庸의 修養論	3. 誠意正心과 格物致知
1. 中庸에서의 誠의 관념	IV. 大巡思想의 修養論
2. 倫理的 價値側面에서의 誠	- 誠을 중심으로
III. 儒學의 朝鮮傳來와 誠思想의 수용	1. 三要諦에 있어서의 誠
1. 栗谷道學의 궁극목적과 矯氣質	2. 誠의 目的
	V. 結論

## I. 序論

대순사상에서의 신조는 종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된 신앙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실천방법론에 해당하며, 사강령과 삼요체로 나누어진다. 綱領이란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수행하기 위한 訓典이 되는 대원칙을 말하는 것이며, 요체란 실천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몸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세를 이르는 것으로서 신앙인의 수도에 있어서의 실천적 토대가 되는 배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표석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성품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성현들은 이러한 성품을 찾아내어서 修身·修養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궁극적 이상향인 君子 또는 聖人の 경지에 이르하고자 하였다.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修養의 한 방법론으로 대두되는 것이 原始儒家의 誠思想으로서 본고에서는 原始儒家의 誠思想을 철학적 체계로 발전시킨 中庸의 誠思想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儒家哲學의 중심을 이루는 誠論이 유학의 한국전래와 그 맥락을 같이 함을 통하여, 誠思想을 한국적 정신으로 투영시킨 栗谷 李耳의 수양론으로서의 誠思想을 살피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誠思想은 한국신종교의 태동에 영향을 미쳤는 바, 동학의 한 예와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誠思想을 통하여 誠思想이 한국적 정신으로 전개되어왔음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속에서 中庸의 誠과 栗谷의 誠을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誠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수양론으로서의 誠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中庸의 修養論

### 1. 中庸에서의 誠<sup>1)</sup>의 관념

中庸에서는 인간의 성품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여 ‘天命之謂性’<sup>2)</sup>이라고 그 대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天은 全知全能하면서도 至善至美한 것이다. 그렇지만 中庸에서는 이 天이 곧 인간본성의 근원이며 인간의 내면세계의 근원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sup>3)</sup>

인간이 밝혀야 하고 따라야 할 이 인간의 본질을 中庸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는 본성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며 둘째로 그 본성의 도덕적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sup>4)</sup>

특히 誠은 眞實無妄한 것으로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이라 보았다. 이 誠은 인간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의 공통된 근원

1) 서양에 있어서도 성실을 중요하게 여김은 마찬가지다. 특히 성실이야말로 실존 철학 전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사상이다.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는 주체성이 곧 진리라고 하며, 성실성이 없는 곳에 진리도 없다고 하였다.

2) 中庸首章

3) 中庸首章 : 蓋人知己之有性而不知其出於天

4) 中庸에서는 본성의 상태를 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다. 그래서 中庸을 誠者天之道也<sup>5)</sup>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天地의 道가 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실성은 사물의 종말도 되고 시초도 된다. 성실성이 없으면 따라서 사물의 존재도 없다」<sup>6)</sup>

라 하였다.

誠이란 字는 言과 成의 결합으로서 言에 의미가 있고 成에는 音符만 취한 것으로서 ‘信’이라고 하였다.<sup>7)</sup>

대체로 誠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는 「말이 이루어진다」<sup>8)</sup>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成字의 뜻은 戊字와 丁字의 결합으로 戊자는 茂자와 상통하며 草木이 茂盛한 뜻을 내포하고, 丁자도 草木의 싹이 돋아나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誠字는 言과 成의 양쪽의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sup>9)</sup>

그러므로 誠의 문자상 語義로 볼 때, 人間의 일상생활에 통용되고 있는 말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 자신부터 진실성을 가지는 말이어야지만 상대방에게 誠實性和 信賴性을 줄 수 있는 것이다.

誠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루는 것<sup>10)</sup>이라고 하고 또 誠이 모든 사물의 처음이며 끝<sup>11)</sup>이라고 하였는 바, 誠이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고 育成하는 자연의 법칙이라면 誠되게 한다는 것은 善을 가려내어서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sup>12)</sup>으로서 人間の 當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誠은 存在와 原理를 나타낸 것이요 誠되게 한다는 것은 當爲를 의미하는 것이다.

「聖人の 德은 當然한 하늘의 이치라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이, 생각하고 힘쓰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히 道연에 맞으니 이것 또한 우주의 섭리요 聖人の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사람욕심의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5) 中庸 20章

6) 中庸 25章 : 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7) 誠信也從言成聲, 설문해자

8) 柳承國, 東洋哲學論考, 成均館大學院東洋哲學研究室, 1974, 179면 참조

9) 上揭書, 149면.

10) 中庸 25章 : 誠者自成也.

11) 中庸 25章 : 誠者物之終始

12) 中庸 20章 :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그 德됨이 능히 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얻을 수 없으니 반드시 착한 것을 생각한 연후에 착함을 밝힐 수 있고, 이를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능히 바르게 되지 못한즉 반드시 善을 가려내어 그것을 굳게 지켜야 만이 자신을 誠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사람의 도리라고 한다.」<sup>13)</sup>

誠이란 天地의 道요, 聖人の 道로서, 天道와 聖人の 道는 같은 것인 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인간의 행동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되어 眞實無妄한 誠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誠은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간 주체성을 바탕으로 從的으로 전개되는 天人合一<sup>14)</sup>에 관한 내용이며, 둘째는 人間主體의 안과 밖을 횡적으로 연결하는 內聖外王<sup>15)</sup>사상이다.

먼저 天人合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誠思想이 天之道를 설명하고 있는 주제관념으로 등장한다.

중용에서 밝히고 있는 誠思想體系는 原始儒家에서 논의되어진 인간학적 심성론의 본질에 관한 철학체계라 할 수 있다. 誠思想의 본질이 유가사상의 본령인 심성론, 즉 천지라는 존재일반에 대한 境界義를 인간 내재적 가치체계내의 인식하에서 체용일원적 묘합에 두고 있는 사상체계임을 뜻한다.<sup>16)</sup>

이 의미는 誠思想체계가 인간의 존재일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理法질서라는 뜻으로 그것은 바로 우주적 질서를 道德秩序라고 보는 관점과도 상통하며, 道德的 秩序가 우주적 秩序라는 理法과도 부합된다.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中庸 21章)

誠은 天地道라고 논하고 있는데 그 핵심어는 誠이라는 인간 주체적 도덕 개념을 바로 天地道라고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자신이 理法으로서의 性을 존재세계에 부여함으로써 존재세계자체의 가치판단을 인간주체적

13) 中庸 20章 朱子註：聖人之德 渾然天理 眞實無妄 不待思勉而從中道 則亦天之道也 未至於聖則不能無人欲之私 而其爲德不能皆實 故未能不思而得則必擇善 然後可以誠身 此則所謂人之道也。

14) 中庸 誠字的研究, 吳怡, 40-47면 참조

15) 上揭書, 53-60면 참조

16) 中庸 20章

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는 인간을 주체로 한 天人合一思想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17)</sup>

宋代이전의 증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誠사상체계의 본체론적인 측면을 논하는 것으로서, 유가사상의 흐름내에서 발전된 性사상에 대한 天道論의 고찰 즉 誠사상의 天人合一의 사상체계를 인간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面而中 不思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中庸 20章)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仁也 成物 知也 性知德也 合外內之道也 故 時措之宜也。」(中庸 24章)

誠思想體系는 인간존재에의 순수가치적 생명자체를 誠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 포함된 誠思想의 天人關係論을 살펴보면, 인간의 주체생명을 들어 天之道와 그 蒼生을 분석해가고 있는 관점으로서 誠思想에 대한 本體論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儒家思想의 흐름내에서의 誠은 인간존재의 자기 밝음 즉 인간 본성의 직관으로서의 誠이 되고 있다. 즉 誠은 인간존재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간 자아의 자기이법이며 자기본질내에서 솟아나는 卽自的 自我로 언급한다. 이 의미는 誠이 생명과도 통하며 性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中庸에 있어서의 誠의 認識論體系는 天道自體의 事實的 領域에 대한 論理的 고찰에 의하여 성립되어지는 객관성을 저변으로 한 논리적 사상체계가 아니라, 인간주체의 심성내에서 직관적으로 부여하는 天之道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內聖外王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中庸에서는 人間의 능력의 개인차를 3단계로 구분<sup>18)</sup>하고 있으며, 誠은 人間倫理道德 行爲의 근본이고 교육의 目的이 되고 있다. 이러한 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각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 곳으로 일치되

17) 中庸 22章 :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18) 中庸 20章 : 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고 있다.<sup>19)</sup>

이러한 學知篤行의 방법을 中庸에서 설명하기를 「남이 한번 잘하게 되면 자기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잘하게 되면 자기는 천 번을 해야한다.」<sup>20)</sup>고 하여 궁극의 목표인 誠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글을 바탕으로 中庸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인간상을 살펴보면, 中庸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中<sup>21)</sup>과 誠 두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이상적 인간은 中과 誠을 깨쳐서 사회에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中庸에서 말하고 있는 君子란 한마디로 말하면 中庸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中庸이란 말의 뜻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며 평범속에 들어있는 천하의 定理인 中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분명하게 定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아닌 ‘誠을 늘 생각하며(思誠)’ ‘誠을 실행하려고 늘 노력하며(誠之)’, 또한 ‘人間本然의 性을 따르고자(率性)’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름아닌 中庸에 있어서의 理想的인 人間像인 君子 혹은 聖人인 것이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성실함 그 자체’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야만 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태도를 中庸에서는 ‘성실하려고 하는 것’(誠之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사람의 길’(人之道)이라고 한다.<sup>22)</sup> 誠之者를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君子’이며, 理想的인 人間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君子라 규정

19) 中庸 20章 : 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强行之 及其成功一也.

20) 中庸 20章 :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21) 中은 도덕성의 총체의 형식이다. 和도 바로 이러한 中개념의 영역 속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和란 작용중의 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中이 상태는 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다. 誠에 기초하고 성에 의해서 지지될 때만 中의 형식은 존립가능한 것이다. 誠은 中형식의 실제적 내용을 구성한다. 中이 도덕성의 형식적 본질이라면 誠은 도덕성의 실제적 본질이 된다.

中道の 시현은 誠에 바탕을 둔다. 中은 誠의 표현의 형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성은 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中의 형식으로 하며, 和를 구체적인 표현의 양태로 삼는 것이라고 하겠다. (윤천은, 中庸연구 -中庸의 率性修道論,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p.161.)

22) 김용욱,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87, p.321.

한다.

君子를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인 인간의 理想的 목표(聖人)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理想的인 인간으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심하는 誠之者(思誠者·率性者·中庸者)로서의 인간, 즉 인간의 존재방식 그 자체로도 규정하는 것이 中庸에 있어서의 人間觀의 要諦인 것이다.<sup>23)</sup> 바로 여기에서 誠者和 誠之者가 合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나며 또한 天人이 相通할 수 있는 이유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誠者를 ‘誠’ 그 자체라고 말하는 반면, 誠之 혹은 誠之하는 者(誠之者)를 ‘敬’으로 말할 수 있다.

철학사상 誠을 계통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中庸이다. 中庸은 儒家思想을 誠의 기초위에 하나로 융합하려고 한 것이다. 宋代 理學의 창시자인 주돈이는 이러한 誠의 관념을 드러내어 유가정신을 復學시키기 시작하였다.<sup>24)</sup>

儒家의 經典中에서 誠字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으로는 「書經」의 商書篇에서 太甲이 王位에 올라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므로 伊尹이 임금께 아뢰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오호라 하늘은 친함이 없으나 공경하는 사람만은 친해지며 백성은 일정한 따름이 없지만 어진 사람만은 따르고 神은 일정한 누림은 없으나 誠(정성)을 다하는 것만은 누리고 복을 주니, 천자의 자리가 어려우니라」<sup>25)</sup>

또한 「周易」의 文言傳 乾卦文言에

「간사함을 막고 그 誠(성실함)을 보존한다.」<sup>26)</sup>

이러한 誠은 孔子에 이르러 忠信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論語」의 學而篇에 「충성과 믿음을 주로 하며(主忠信)」라는 孔子말에 대하여 朱子が 註한 대목의 程子の 말을 인용한 부분에서 誠과 忠信의 개념을 같이하고 있음

23) 신오현 編著, 「人間的 本質」, 儒家의 人間理解, 형설출판사,

24) 韋 政通, 中國哲學辭典, 昨晨社, 1985, p.682.

「哲學史上把誠做系統性 發展的是中庸, 中庸是企圖把儒家思想, 在誠的基礎上 融會成一體. 宋代理學開山者 周敦頤, 就是提出 成這個觀念, 開始復甦 儒家精神.」

25) 書經, 商書篇 太甲 : 嗚呼 惟天無親 克敬惟親 民罔常懷 懷于有仁 鬼神無常享 享于克誠天位艱哉.

26) 周易, 文言傳, 乾卦文言 : 謹閑邪存其誠

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충성스럽고(忠) 미덥지(信) 않으면 일이 모두 실상이 없다. 惡함을 하기는 쉽고 착한 것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程子が 말하기를 ‘사람의 道는 오직 忠과 信에 있으니 誠하지 못하면 사물이 없다. 또 나가고 들어오는 때가 없어서 그곳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만일 忠(忠)과 信(信)이 없으면 어찌 다시 사물이 있겠는가」 27)

孔子는 ‘修道以仁’이라고 하였는데, 이 仁의 節目이 바로 五達者, 즉 五倫이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知·仁·勇이 三達德이며 이것을 다시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誠인 것이다.

朱子는 誠에 대하여 註하기를

「誠이라는 것은 眞實하여 망령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하늘의 이치가 본디 그러한 것이요 誠되게 한다는 것은 能히 진실하고 망령되는 것이 없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진실하고 망령되는 것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니 사람의 일이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28)

라 하여 誠은 眞實無妄하며 우주의 섭리인 天理의 本然이라고 하였다.

誠思想은 中庸에 있는 「誠者 天地道也. 誠之者人之道也」에 내포된 思想體系이다. 이 구절은 「天이 의미하고 있는 바 現象的 概念이 誠이다」하는 定義를 담고 있고 동시에 人間 存在的, 價值論的 道德的 人道論이 함축되어 있다.

中庸은 말하기를

「그 안에 성실성이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게 된다. 겉으로 나타나면 功이 뚜렷하게 된다. 功이 뚜렷하게 되면 德이 밝아지게 된다. 德이 밝아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 마음은 악에서 선으로 변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악에서 선으로 변하게 되면 덕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오직 천하의 지

27) 論語, 學而篇 朱子註 : 人不忠信 則事習無實 爲惡則易 爲善則難 故學者必以是爲主焉 程子曰 人道惟在忠信 不誠則無物 且出入無時莫知其鄉者 人心也 若無忠信 豈復有物乎.

28) 中庸 20章 朱子註 : 誠者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誠之者 未能眞實無妄而欲其眞實無 妄之謂 人事之當然也.

극한 정성이라야만 온 백성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다。」<sup>29)</sup>

라 했고, 또 말하기를

「지극한 성실성은 정지하는 일이 없다」<sup>30)</sup>

이는 인간의 지극한 성실(至誠)은 곧 타인과 사회를 움직일 수 있으며, 심지어 천지의 化育에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이라야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할 수 있다.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할 수 있다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할 수 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할 수 있으면 만물의 타고난 본성을 극진히 할 수 있다. 만물의 타고난 성질을 극진히 할 수 있으면 천지가 만물을 化育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도울 수 있다. 천지가 만물을 化育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도울 수 있다면 천지, 즉 우주와 더불어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sup>31)</sup>

「中庸」의 誠論은 孔子의 사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修身의 본질적인 성실함을 궁극적으로 우주에까지 귀속시키려고 한다. ‘성실함 그 자체는 하늘의 길’<sup>32)</sup>이라고 中庸은 말하고 있다.

## 2. 倫理的 價値側面에서의 誠

誠을 윤리적 가치측면에서 살펴보면 儒家哲學의 中心思想이 誠이 되는 바 이는 誠이 儒家倫理의 근간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儒家의 윤리는 하늘에 근본하여 인간이 실천해야 할 인륜을 정한 것이다. 하늘을 경배하고 하늘에 순종하며 인간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敬天의 禮는 人間倫理의 기틀이 되었던 바, 儒家의 윤리가 天理에 근본하여 人間이 실천할 人倫이라는 면에서 우주의 본체인 誠을 실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誠은 인간 天賦의 性과 동일시되고 있으며<sup>33)</sup>, 誠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29) 中庸 23章 :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爲能化.

30) 中庸 30章 : 至誠無息

31) 中庸 22章 :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32) 中庸 20章 : 誠者 天之道也

33) 中庸 1章 :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爲教.

誠되게 하려는 것이다. 誠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善<sup>34)</sup>을 가려내어 굳게 지키는 것으로 결국 誠의 倫理的 파악은 善의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

善을 실천덕목으로 한 誠은 사람이 행할바의 倫理的 價値로서 개인에게 있어서 人道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當爲로서, 誠은 이 모든 행위의 資質이 된다.

孟子는 사람이 행할바의 의미로서 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버이를 기쁘게 하는데는 道가 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誠하지 않으면 아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자신을 誠하게 하는데는 道가 있으니 善을 밝히어 알지 못하면 그 자신이 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誠이란 하늘의 도리이고 誠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다. 지극히 誠한 데도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誠하지 않고서도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sup>35)</sup>

즉 자신을 반성하여 모든 것을 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며 善을 밝혀서 알지 못하면 자신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사물의 이치가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나 자신을 반성해서 誠하다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sup>36)</sup>고 하였다.

大學에서는

「이른바 그 뜻을 誠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니, 나쁜 냄새를 싫어함과 같고 좋은색을 좋아함과 같으니 이것을 일컬어 스스로 기꺼워함이라 한다. 그러므로 君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 하는 것이다.」<sup>37)</sup>

이러한 誠을 中庸에서는 價值的 德目으로써 善을 실현해야 함을 의미하고

34) 孟子는 誠하고자 하는 것이 善이라고 하였다. 사람의 하고자 함이란 善도 惡도 다 가능하나 바람직한 방향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善의 眞意라고 하였다. 따라서 孟子는 性善을 말하되 그것이 근거없는 空虛한 것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堯舜을 함께 일컬어 性的 막연한 一般性을 비유하여 입증하였다.

35) 孟子, 離婁章 上 : 悅親有道 反身而不誠 不悅於親矣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誠其身矣 是故誠者 天地道也 思誠者人之道也 至誠而不動者未之有也 不誠未有能動者也.

36) 孟子, 盡心章 上 :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不誠 樂莫大焉.

37) 大學 6章 誠意章 :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必慎其獨也.

있는 것이다.

「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道요 誠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道다. 誠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的中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지며 자연히 道에 맞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이 聖人이요 誠되게 하는것(誠之)은 善을 택해서 그것을 굳게 지키려는 것을 말한다.」<sup>38)</sup>

따라서 天道의 誠과 人道의 誠되게 하는 것의 誠은 天과 人의 교량이 되는 것으로, 誠이란 眞實無妄한 것이며 眞實無妄하지 못한 사람이 眞實無妄하고자 함을 말한다.

그러한즉 誠은 우주법칙의 本然한 것이며 誠되고자 함은 人事의 當연함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倫理的 價値德目으로서 善을 추구해야 함을 알았다.

倫理라는 말이 人間의 道德原理, 人間의 道義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아 倫理는 人間行爲문제와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人間行動의 計劃的인 변화<sup>39)</sup>라는 면에서 볼때, 人間行爲의 절대목표인 誠을 實現하기 위하여 사람이 행할바로서의 倫理的 德目인 善을 추구해야 함은 誠이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誠의 근본 사상은 우주의 本源이면서 동시에 人間의 本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誠이란 우주의 法則이다. 즉 만물을 이루게 하는 원리<sup>40)</sup>인 것이다.

둘째 誠이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sup>41)</sup>

셋째 誠은 宇宙間의 原理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인간과 만물의 本性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sup>42)</sup>

네째 誠이란 完全히 自足自成하며<sup>43)</sup> 無聲無臭하여 知覺할 수 없는 것<sup>44)</sup>이

38) 中庸 20章 : 誠者天地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得從容 中道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39) 鄭範謨, 敎育과 敎育學, 서울 : 倍英社, 1981, p.16.

40) 中庸 25章 : 誠者非自成己而已也所以成物也

41) 中庸 26章 : 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攸遠 攸遠則 傳厚 傳厚則高明

42) 中庸 25章 : 誠者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 誠之爲貴

다.

다섯째 誠이란 인간의 道理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誠은 우주섭리인 天道이지만 이러한 誠에 도달하기 위하여 人間이 誠되게 하려는 努力이란 점에서 人道가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법칙의 원리인 동시에 인간 윤리도덕의 原理가 되는 것이다.<sup>45)</sup>

### Ⅲ. 儒學의 朝鮮傳來와 誠思想의 수용

#### 1. 栗谷道學의 궁극목적과 嬌氣質

유가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誠이 한국에 수용된 것은 유학의 전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up>46)</sup>

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誠사상은 그것이 한반도에 전래되어 인간의 생활인 삶의 규범에 많은 영향을 미쳐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니와 특히 유학이 國是를 이루었던 朝鮮時代에 와서는 誠思想은 韓民族의 精神的 흐름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誠思想은 中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의 理論的인 체계로 구성되었는바 다음에서 誠의 한국적 전개를 살피고자 한다.

儒學의 궁극적 목표가 天人合一인 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때, 그것은 本質的으로 根源的 眞理(誠)와 나(誠之者)가 하나가 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됨의 指向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실천적 爲己之學을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은 誠思想을 한국적 精神으로 투영해서 나타낸 사람으로 栗谷 李耳를 들 수 있다.

율곡의 道學에서 도덕적 전인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聖人是 관념적이거나 종교적 의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상적 인간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실천적 노력에 의해서 중국적으로 이를 수 있는 실제적인 人間像

43) 中庸 25章 : 誠者自成也 而道自道也

44) 中庸 33章 : 上天之載 無聲無臭

45) 이영경, p.7-8.

46) 中庸의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는 誠은 그 자체 또한 儒學의 본질이기 때문에 誠의 전개는 곧 儒學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

이다. 모든 인간존재는 聖人과 그 본성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모든 인간은 聖人に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聖人으로 형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형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를 내포한다.<sup>47)</sup>

衆人과 聖人은 그 본성은 동일하다. 다만 그 氣質에 있어 淸濁粹駁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修養을 통해 舊染을 씻어버리고 그 性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면 萬善이 원래 具足한 것이라 한다.<sup>48)</sup> 그러므로 자신의 氣質의 극복을 통해서 누구나가 聖人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氣質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는 뜻이 세워지고 知가 밝아지며 행실이 돈독해지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즉 바른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인간이 원래 善한 존재임을 아는 것과 그 善을 돈독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立志는 자신의 善을 실현시키는 근본이 된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들 수 없고, 사람의 체력은 약한 것을 변화시켜 강하게 만들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길게 만들 수 없으니 이는 이미 정해진 분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心志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것을 변화시켜 현명하게 할 수 있으니 이는 마음의 허령함은 氣質의 품부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sup>49)</sup>

栗谷은 모든 사람은 志로써 氣를 이끌어 자신을 聖人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聖人이 되기를 배움에는立志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志가 세워지지 않고 능히 功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修己의 조목에立志를 제일 먼저 둔다고 말하며 修己의 근본으로立志를 제시하였다.<sup>50)</sup> 즉立志의 내용은 한마디로 ‘聖人이 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sup>51)</sup>

47) 이영경, p.87.

48) 「栗谷全書」(이하 「全書」라 표기함), 卷27, <擊蒙要訣> :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不能無淸濁粹駁之異而苟能眞知實踐 去其舊染而復其性初則不增毫末而萬善具足矣.

49) 「全書」, 卷27, <擊蒙要訣> : 人之容貌 不可變醜爲妍 膂力不可變弱爲強 身體不可變短爲長 此則已定之分 不可改也 惟有心志 則可以變愚爲智 變不肖爲賢 此則心之虛靈 不拘於稟受故也.

50) 「全書」, 卷, <聖學輯要> : 臣接 學莫先於立志 未有志不立而能成功者 故修己條目 以立志爲先.

51) 장숙필, pp.156-158.

栗谷에게 있어서 人間完成을 지향하는 실천적 방법론의 근간은 形氣의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天理의 善을 이룰 수 있도록 ‘氣質을 矯正한다’(矯氣質)는 것이다.

聖人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 氣質을 청명하게 하고 天理를 이루게 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자기수양의 요체이다. 율곡은 이러한 실천방법으로서 志의 정립, 경의 體現, 理의 窮究, 行의 篤實을 강조한다. 이들 4가지의 개인적 수양론은 율곡 道學의 특성인 理論과 實踐의 겸전을 속성으로 한다. 즉 율곡은 인간의 자기형성적 측면에서 志와 行의 문제를 妙合적으로 관계짓고 있는 것이다.<sup>52)</sup>

矯氣質을 함에 있어 우선 되는 것은 立志로서 다음과 같다.

堯舜은 율곡의 인간이념이 표방하고 있는 이상적 존재인 聖人을 비유하는 구체적인 존재로서 설정된다. 그러므로 요순에 準據하게 하는 것이 志의 바른 거점이 된다. 堯舜같은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뜻한다고 하더라도 凡人은 왜 聖人에 이르지 못하고 凡人으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연유를 설명한다.<sup>53)</sup>

인간이 凡人이 되기도 하고 聖인이 되기도 하는 것은 知와 行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知가 밝고 行이 독실하면 聖인이 되며 그렇지 아니하면 凡人이 된다는 것이다. 知가 밝고 行이 독실할 수 있는 까닭은 志가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凡人이 되기도 하고 聖인이 되기도 하는 分岐는 志이다.<sup>54)</sup>

따라서 精誠으로 공부하는 것, 즉 배우는 것(學)으로써 立地를 명확히 하여 志를 밝게 하고 行을 돈독하게 하여야만 聖人の 德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栗谷은 ‘배우는 자는 먼저 志를 세워서 道로써 自任하여야 한다’<sup>55)</sup>고 하였다.

學을 통해서 志를 바르게 하는 것은 다만 理論知를 습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化하는데 있다. 生而知之하는 것과 學而知之하는 것은 자질은

52) 이영경, p.87.

53) 「全書」, 卷27, <擊蒙要訣> : 人性本善 無古今智愚之殊 聖人何故獨爲聖人 我則何故獨爲衆人耶 良由志不立知不明行不篤耳.

54) 이영경, p.87.

55) 「全書」, 卷15, <學校模範> : 謂學者先須立志 以道自.

비록 같지 않을지라도 그 成大하여 化하는 경지에 이르러서는 차별이 없으므로,<sup>56)</sup>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그 성품을 순화 내지는 교화하는 것이다. 學의 목적이 '成大하여 化하는 것'이라고 함은 學이 곧 道德論的인 바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7)</sup>

이미 학문에 성실하면 반드시 氣質의 편벽됨을 矯治하여 本然之性을 회복한다.<sup>58)</sup>

기질의 淸濁으로부터 人間의 質的인 차이가 초래되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學이 대두된다. 그러므로 矯氣質을 통한 本然之性의 회복이 곧 學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立志하여 聖人으로 됨을 自期하는 것<sup>59)</sup>이 배우는 자 즉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간사한 것을 막으면 그 誠은 저절로 있는 것이다. 恭敬은 간사한 것을 막는 道이며 간사한 것을 막는 것은 誠을 보존하는 것이다」<sup>60)</sup>

여기서 誠은 邪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뜻이 氣를 이기지 못하여 한가이 홀로 처리하는 사이에 간사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데, 간사한 생각이 있게되면 곧 막고 누르는 것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는 誠인 것이다.」<sup>61)</sup>

즉 간사함을 막기 위하여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으로, 율곡은 誠을 간사함이 없이 생각하는 것<sup>62)</sup>이라 하였다. 따라서 誠은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요 노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학자는 반드시 誠心으로 道에 향하고 세속의 일로써 자기의 뜻을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만 학문의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하여 學問은 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63)</sup>

56) 「全書」, 卷9, <上退溪先生問目> : 生知與學知 資質雖不同 及其大而化之 則無有差別.

57) 이영경, p.91.

58) 「全書」, 卷21, <聖學輯要> : 既誠於爲學 則必須矯治氣質之偏 以復本然之性.

59) 「全書」, 卷27, <擊蒙要訣> : 初學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60) 「全書」, 卷21, <聖學輯要> : 閑邪則誠自存 敬是閑邪之道 閑邪存誠只是一事.

61) 「全書」, 卷21, 志不勝氣閑居 獨處之際 邪思興焉 一有邪思卽遏制之 及不自欺之誠也.

62) 第以思無邪是誠 (上同)

또한 誠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양하는 으뜸<sup>64)</sup>이라 하여 誠을 修養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栗谷은 誠에 바탕하여 修己와 學問함을 말하였으며 이에 誠으로서 立志를 해야 한다고 하여 철저한 자기수양을 교육적 의미로 제시하였다.

유학의 목표는 그 실제적인 목표가 修己와 治人인데, 誠은 유학의 근본사상이므로 그것을 목표로 하여야 달성할 수 있으며 수기·치인의 목표 자체가 人道와 天道에 관한 형이상학적 해명이 선행되어야만 그 성립 근거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栗谷은 인간의 본성은 善하다는 입장에 서고 있다. 그리고 志는 人間의 善性이 본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心이 가는 바이므로 곧 善을 지향한다. 즉 志는 善指向의이다. 그러나 그 志는 단순히 善을 지향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善을 지향하고 惡을 배척하는 적극적인 道德志이다. 따라서 志가 서지 않는 병통이라고 지적되는 不信과 不智 그리고 不勇의 세가지<sup>65)</sup>를 고쳐 立志하는 것은 聖人을 뜻대로 삼아 자기완성을 도모하는<sup>66)</sup>인간형성의 始發이다. <sup>67)</sup>

栗谷은 立志하는 방법을 誠에 두고 있다. 그는 참(誠)되면 志가 저절로 서는 법이라고 하여 입지가 확고해지는 길은 오직 나 스스로의 誠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栗谷에 있어서 誠은 志와 理, 그리고 質은 물론 궁리·거경·역행의 근원적인 힘이요 聖學終始의 요체가 된다. 요컨데 誠은 모든 사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sup>68)</sup>

이의 실천은 '내가 仁하고자 하면 이 仁이 이를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본래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다만 자포자기로 인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라 한다. 이는 道가 본래 인간에게 고유하다는 性善을 전

63) 「全書」, 卷27, <擊蒙要訣> : 學者必誠心向道 不以世俗雜事亂 其志然後爲學基土止.

64) 「全書」, 卷31, <聖學輯要> : 誠其意者 自修之道也.

65) 「全書」, 卷20, <聖學輯要> : 志之不立 其病有三 一日不信 二日不智 三日不勇.

66) 「全書」, 卷14, <自警文> : 先須大其志 以聖人爲準 一毫不及聖人 則吾事未了.

67) 이영경, p.93.

68) 율곡사상의 현대적 공간, p.185.

제로 한 것이므로 聖賢의 가르침을 믿고 누구든지 배움을 통해 氣稟을 극복하면 聖賢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因循姑息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제적인 공부가 있어야 志가 제대로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sup>69)</sup>

둘째, 敬의 體現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栗谷 또한 퇴계와 마찬가지로 敬의 가치를 聖人됨의 기본으로 삼는다. 즉 栗谷은 ‘敬은 聖學의 始終’<sup>70)</sup>이라고 함으로써 聖人됨의 始發은 곧 敬으로부터 연유된다고 하였다. 敬은 善을 이루는 방법론적 의미를 지닌다. 즉 敬을 통해서 善을 이룰 수 있으므로 敬은 善을 실천하는 수양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율곡은 敬을 聖인과 연결하면서, 직접적으로 敬을 善과 관계짓는다.

聖인이 된다는 것 즉 至善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그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사사로이 방종케 하지 아니하고 天理에 합당하도록 修養해 나가는 것이다.

栗谷은 또한 敬의 개념을 誠과 연관시켜서 ‘敬은 用功의 요체이고 誠은 收功한 곳이니 敬으로 말미암아 誠에 이른다.’<sup>71)</sup>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誠이 결과 내지는 목적이고 敬이 수단 내지는 방법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栗谷의 본의는 誠과 敬에 선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敬은 다만 수양의 방법임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誠은 敬의 根源이고 敬은 誠을 反求하는 工夫이며, 理는 仁이 天에 있는 것이고, 仁은 理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다. 敬으로써 禮를 회복하여 天理를 온전히 하면 이것이 至誠의 道가 아닌가.」<sup>72)</sup>

戒懼와 謹獨을 요체로 삼아 居敬하는 것은 位天地하고 育萬物하는 聖人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敬은 곧 心身修養의 基礎를 함양하

69) 「全書」, 卷 , <聖學輯要> : 北溪陳氏曰 志於道 是心全向於道 若有作輟退轉底意思 便不得謂之志.

70) 「全書」, 卷20, <聖學輯要> : 敬者 聖學之始終也.

71) 「全書」, 卷21, <聖學輯要> : 敬是用功之要 誠是收功之地 由敬而至於誠矣.

72) 「全書」, 拾遺 卷6, <四者立言不同疑二首> : 誠者敬之原也 敬者反乎誠之功也 理則仁之在乎天者也 仁則理之賦於人者也 敬以復禮以全天理 則此非至誠之道乎.

는 것으로서 爲己를 인간형성의 일차적 가치로 삼는 儒家의 핵심적 수양방법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居敬으로써 근본을 세우고 窮理로써 善에 밝는다’<sup>73)</sup>고 하였던 것이다.<sup>74)</sup>

실로 栗谷의 수양론에 있어서 敬과 誠공부는 수례의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다.<sup>75)</sup>

「성실(誠)은 하늘의 실제적인 이치(實理)요, 마음의 본체이다.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함은 개인적인 사사로움(私邪)이 본심을 가리기 때문이다. 敬을 위주로 하여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제거하면 본체(誠)가 완전해진다. 敬은 힘쓰는 것(用功)의 요령이요, 誠은 힘을 거두어들이는 것의 경지이니, 敬으로 말미암아 誠에 이른다.」<sup>76)</sup>

이렇게 본다면 이른바 居敬공부는 일종의 과정이요, 存誠공부는 그 효과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sup>77)</sup>

셋째, 理의 窮行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理를 궁행한다는 것은 物我一理의 格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그 會通의 理를 공부하는 것이다.

窮理는 居敬으로 마음의 근본을 닦는 바탕에서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이치를 궁구하여 善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居敬은 궁리를 위한 것이며 窮理는 居敬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居敬과 窮理는 그 실제에 있어서는 다만 한가지이므로 二而一이면서 一而二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진다. 窮理는 善을 밝히는 所以이고, 善의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天理이니 窮理는 天理를 吾心의 本然之中으로 밝히는 所以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窮理를 다하는 것은 善에 밝은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聖人됨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73) 「全書」, 卷27, <擊蒙要訣> : 居敬以立其本 窮理以明乎善.

74) 이영경, pp.95-100

75) 율곡철학의 이해, p.128.

76) 「全書」, 卷21, <聖學輯要> : 臣接 誠者天之實理 心之本體. 人不能復其本心者 由有私邪 爲之蔽也. 以敬爲主 盡去私邪 則本體乃全. 敬是用功之地. 由敬而至於誠 矣.

77) 배종호, 앞의 책, p.210 - 211.

「窮理는 그 極을 다하고 知는 그 至를 다하고 意는 그 誠을 다하고 心은 그 正을 다한 사람이 聖人이다.」 78)

이는 物의 이치를 분석하여 그 원리를 통찰함으로써 그 知가 명석하게 모든 것을 헤아려 흔들림이 없는 窮理의 의미를 지적한 것이다. 그 窮理는 곧 物의 원리를 이해하여 誠意와 正心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노력이다. 그러므로 窮理는 궁극적으로 善을 明辨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聖人됨을 지향하는 과정적·방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79)</sup>

마지막으로 行의 篤實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行함 즉 實踐의 문제는 儒家的 인간형성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의 방법으로 하나의 완결적 단계이다. 立志, 居敬, 窮理는 모두 行의 개념 즉 力行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sup>80)</sup>

知와 行은 至善에 이르는 방법론적 개념으로서 그 자체가 상호적으로 완전을 지향하여 이치의 온전한 이해와 실천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栗谷이

「窮理가 이미 밝아졌으니 躬行할 수 있지만 반드시 實心이 있는 뒤에야 實功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誠實은 躬行의 근본이다.」 81)

라 하였다.

‘窮理既明 可以躬行’은 窮理의 철저함과 내밀화를 통해서 행위의 높은 整合성을 견지하려고 하는 所以에서 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 窮理와 躬行의 개념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데 實心和 實功의 개념을 유비시킨 것은 道德的 實踐意志의 함양과 이에 따른 행위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天은 實理로써 化育하는 功을 이루고, 人間은 實心으로써 感通하는 效를 이루는 것이니 이른바 實理와 實心이라는 것은 誠에 불과하다’<sup>82)</sup>고 하였듯이 인간행위는 오로지 實心이 있어야만 感通하는

78) 『全書』, 卷9, <答成浩原> : 物極其本極 知極其至 意極其誠 心極其正者聖人.

79) 이영경, p. 101.

80) 이영경, pp.107-108.

81) 『全書』, 卷21, <聖學輯要> : 窮理既明 可以躬行 而必有實行 然後乃下實功 故 誠實爲躬行之本.

82) 『全書』, 卷6, <誠策> : 天以實理 而有化育之功 人以實心 而致感通之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實心은 결국 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躬行의 근본이라고 지칭된 '誠實' 곧 '誠'은 生生하는 宇宙나 人間의 道德性을 표상하는 개념이므로 인간은 완전한 躬行을 통해서 天地의 道德性을 체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율곡은 '實理의 誠이란 聖人の 기품이 청명하고 도리가 혼연하여 이것이 禮가 되어 生知하고 安行하는 것'<sup>83)</sup>이라고 정의하면서 功效를 다하여 知와 行이 겸비하고 표리가 하나같이 되면 聖人の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sup>84)</sup>고 하였다. 聖人の 표덕은 곧 誠이므로 이러한 입장이 언명되는 것이다.<sup>85)</sup>

유가의 학문이란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며, 독실하게 실천하는 이 다섯 가지를 다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책을 읽고 공리를 하는 것은 독실한 실천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므로 항상 남보다 백배의 노력을 들이는 자세로서 노력해야만 氣質의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誠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中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배우지 않으면 앎이 이왕 배울 바에는 능숙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야 하며, 묻지 않으면 앎이 이왕 물을 바에는 알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야 하며, 변별하지 않으면 앎이 이왕 변별할 바에는 분명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야 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앎이 이왕 실천할 바에는 독실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한 번으로 능숙하다면 나는 그것을 백 번 하고, 다른 사람이 열 번으로 그것에 능숙하다면 나는 천 번을 할 것이다. 과연 이 道를 행할 수 있다면 비록 우매한 자라도 반드시 명석하게 될 것이요, 비록 柔弱한 자라도 반드시 강하게 될 것이다.」<sup>86)</sup>

栗谷은 人間本性의 善함과 氣質로 인한 不善의 상태, 이 둘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儒家가 생각하는 理想的 人格으로서의 聖人이란 本性은 凡人과

83) 「全書」, 拾遺 卷6, <四子言誠疑> : 實理之誠 則聖人氣稟清明 道理渾然 體此而生知安行.

84) 「全書」, 卷22, <聖學輯要> : 用功之至必遺效驗 故次之以功效 以盡知行兼備表裏如一 入乎聖域之狀.

85) 이영경 pp.110-111.

86) 中庸 20章 : 有弗學 學之弗能弗措也 有弗問 問之弗知弗措也 有弗思 思之弗得弗措也 有弗辨 辨之弗明弗措也 有弗行 行之弗篤弗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

동일하다. 그러나 율곡은 聖人の 경우는 至通, 至正, 至淸, 至粹한 氣로 인하여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으로 이해한다.<sup>87)</sup>

氣의 변화를 주재하는 것은 인간의 心이다. 인간의 心이 지닌 虛靈한 특성으로 인해 氣의 변화를 주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율곡은 인간이 타고난 기질의 차이를 극복하고 본래의 완전함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로서 氣의 가변적인 특성과 인간이 心을 주재 능력의 인정, 이 두가지를 제시한다.

氣質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내용을 율곡은 周敦頤의 「通書」를 인용하여 剛柔의 氣稟으로 인한 惡을 고쳐 中에 이르러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88)</sup> 학문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氣質에 따라 그 치우친 바를 잘 살펴,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을 택하여 거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약을 쓰는 사람이 病證에 맞추어서 약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sup>89)</sup> 다시 말하면, 氣質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치우친 氣質을 바로잡아 中道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中道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록 실천의 정도가 中道에 지나치다 하더라도 힘써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氣質을 바로잡아 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 克己에 있다고 본다. 율곡은 사육의 제거야말로 수양의 요체라고 보았으며, 사육은 氣의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 한다.<sup>90)</sup>

사사로운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儒家的 修養論의 핵심개념이다.

栗谷의 사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눈을 돌려 사회기강의 확립, 제도개혁 등을 통하여 대동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다시말해서 栗谷의 道學 실천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실천의 범주가 개인적 영역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데 있는 것으로 道의 사회적 실천이 栗谷의 道學에서 중시되는 것이다.

87) 「全書」, 卷9, <答成浩原>: 聖人者 獨得至通至正至淸至粹之氣 而與天地合德 故聖人亦有定成而無變.

88) 「全書」, 卷 , <聖學輯要> : 剛善爲義 爲直 爲斷 爲嚴毅 爲幹固 惡爲猛 爲隘 爲強染 柔善爲慈 爲順 爲( ) 惡爲유弱 爲無斷 爲邪佞 惟中也者 聖人之事也 故聖人立教 俾人自易其惡 自至其中而止矣.

89) 「全書」, 卷 , <聖學輯要> : 言氣質不同而矯之各有法條.

90) 장숙필, pp.162-165.

## 2. 栗谷의 修養論에 있어서의 誠

栗谷의 誠은 수기와 치인의 양면에 걸친 것이다. 율곡은 <聖學輯要>에서

「신이 살피건대, 誠이란 것은 하늘의 실리요 마음의 본체인데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사가 있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敬을 주체로 삼아 사사를 없애 버리면 본체는 곧 완전하게 됩니다. 敬은 用功에 긴요한 것이요, 誠은 收功하는 것은 밑바닥이므로 敬에서 誠에 이르게 됩니다.」<sup>91)</sup>

라고 하여 그는 誠을 天의 實理, 心의 본체라 하고, 敬을 공부의 요령으로, 誠을 공부의 효과로 보았다. 그러나 誠은 敬의 原이요, 成己成物이다.<sup>92)</sup>

「한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만사가 모두 거짓이므로 어디를 간들 가히 행할 수 있겠으며, 한 마음이 실로 진실하다면 만사가 모두 진실할 것이니 무엇을 한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修己와 治人의 근본이다. 지금 비록 따로 한 章을 만들어 그 대개를 진술하였지만 성실하게 하는 뜻은 실로 上下의 모든 章에 일관하고 있다. 만일 뜻이 성실하지 않으면 확립되지 못하고, 이치가 성실하지 않으면 窮格되지 못하며, 氣質이 성실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으니 다른 것도 미루어 알 수 있다.」<sup>93)</sup>

「誠實이 窮行의 근본이 되며, 聖人이 參天地贊化育하는 것도 至誠이 이르게 한 것이라 한다.<sup>94)</sup>

誠이란 格天地 動鬼神 服人心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여 誠의 體는 심히 隱微하나 그 用은 심히 顯著하므로 天地를 格하게 할 수 있고 鬼神을 動하게 할 수 있으며 人心을 복종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95)</sup>

율곡은 誠이 만물의 終始가 된다는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91) 「全書」, 卷20, <聖學輯要> : 臣接 誠者 天之實理 心之本體 人不能復其本心者 由有私 邪爲之蔽也 以敬爲主 盡去私邪 則本體乃全 敬是用功要 誠是收功之也 由敬而至於誠矣.

92) 율곡사상의 현대적 공간, pp.181-182.

93) 「全書」, 卷21, <聖學輯要> : 一心不實 萬事皆假 何往而可行 一心苟實 萬事皆眞.

94) 「全書」, 卷6, <誠策> : 若聖人則不勉而中 不思而得 其所以參天地贊化育者 乃至誠之所致也.

95) 「全書」, 卷6, <誠策> : 其體甚微 而其用甚顯 故天地可以格 鬼神可以動 人心可以服矣.

「誠은 만물의 終始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元亨利貞은 天의 誠이요, 仁義禮智는 性의 誠이다. 陰陽二氣도 이 誠이 없으면 함께 움직일 수 없으며 四時도 이 誠이 없으면 번갈아 바뀔 수가 없다. 해와 달은 誠으로 인해 밝고, 산악은 誠으로 인해 높으며 河海는 誠으로 인해 깊다. 그러므로 不誠無物라 한다.」<sup>96)</sup>

이 誠은 율곡에게 인간의 實心으로 이해된다.<sup>97)</sup>

栗谷에 의하면 誠은 志와 理와 質은 물론 궁리·거경·역행의 근원적인 동력이 되는 동시에 수기치인과 聖學終始의 요체가 된다. 誠은 窮行之本이요, 聖人之本이라 아니할 수 없다.<sup>98)</sup>

성실공부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면 몸을 주재하는 마음을 독실하게 가져야 한다.

그래서 栗谷은 誠은 진실한 것(誠實也)이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毋自欺也)고 했다. 즉 誠은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誠인 것이다. 그것은 진실로 자신에 대하여 충실한 동시에 남에 대하여 정성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誠은 자기체현의 전제인 것이요 그에 의하여 자기존재의 길을 열 수 있는 개시성인 것이다. 誠을 떠나서 참다운 인간과 사물의 존재와 학문도 이를 수 없다. 진·선·미라는 것도 자기성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간적 태도란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는 誠 그 자체인 것이다. 그에 의하여 一心이 진실로 참(誠)되면 만사가 다 참(眞)된 것이니, 誠은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인도이다.

栗谷은 程子の 말을 인용하여 ‘학문은 어두운 방에서도 결코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學始於不欺暗室)’<sup>99)</sup>고 하여, 誠이 결여될 때 모든 지식은 도리어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입지와 誠을 力行하고 극기로서 본연지성을 회복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sup>100)</sup>

96) 「全書」, 卷6, <誠策>

97) 장숙필, p.167.

98) 율곡사상의 현대적 공간, p.185.

99) cf) 대순지침, p.28 : 「“크고 작은 일은 천지의 귀와 신이 살피시니라”하셨으니, 도인들은 암실기심(暗室欺心)하지 말아야 한다.」

대순지침, p.39 :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

100) 율곡사상의 현대적 공간, pp.185-190

栗谷은 神의 존재와 인식에 관해서도 誠으로 설명한다.

「무릇 천하의 만물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다만 오직 사람이 죽은 귀신만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 까닭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정성이 있으면 그 신이 있어서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신이 없어서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 있고 없는 기틀이 어찌 사람에게 있지 않겠는가?」<sup>101)</sup>

神의 존재유무와 만약 있다면 그것을 느껴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 주체의 至誠에 달린 것이다.

이러한 조상신의 감통문제는 유교의 조상 숭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程子 등 다른 성리학자들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sup>102)</sup> 이와 같이 을곡의 인식론에 있어서 誠은 격물치지의 근본원리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3)</sup>

### 3. 誠意正心과 格物致知

栗谷에 있어서 격치나 궁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참된 앎(眞知)에 이르는 데 있다.

栗谷은 참된 앎과 거짓된 앎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대개 만사만물은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고, 사람의 한 마음은 온갖 이치를 관섭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구하지 못할 이치는 없다. 다만 열리고 닫힘이 한결같지 않고 밝고 어둠의 때가 있어서 궁리하고 격치할 때에 혹 한번 생각하여 바로 체득하는 것도 있고, 혹 자세히 생각하여 비로소 깨닫는 것도 있으며, 혹 마음을 써서 애를 태워도 투철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생각하여 얼음이 있어서 밝게 자신하고 시원하게 즐거우며 분명하게 말로써 형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진실로 체득한 것이다. 비록 체득한 것이 있는 듯하더라도 믿는 가운데 의문이 있으면 위태롭고 편안하지 못하여 얼음이 풀리는 듯 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것

101) 『全書』, 拾遺 卷4, <死生鬼神策> : 凡天下之物 有則有 無則無 惟人死之鬼 則不可謂之有 不可謂之無 其故何哉 有其誠則有其神 而可謂有矣 無其誠則無其神 而可謂無矣 有無之機 豈不在人乎.

102) 『性理大全』, 卷28, <論祭祀組考神祇> : 程子曰 組考來格者 惟至誠爲有感必通.

103) 을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pp.299-301.

은 억지로 추측한 것일 뿐 진실로 얻은 것이 아니다。」<sup>104)</sup>

또한 참된 앎의 경지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천하는 것이다. 栗谷은 朱子の 말을 인용하여 眞知와 不眞知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사람들이 선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일을 당하면 또 하게 되니 다만 이것은 아는 것이 아직 극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附子는 사람을 죽이므로 먹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단연코 끝내 먹지 아니하니, 이것은 진실로 안 것이다. 선하지 않은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혹 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알지 못한 것이다。」<sup>105)</sup>

栗谷은 이러한 朱子の 설을 인용하고 있으며 未熟知 내지 不眞知가 아닌 眞知를 격물치지의 궁극 목표로 삼았다.<sup>106)</sup>

格物致知는 지식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교 철학의 인식론에 해당되고, 誠意正心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론의 문제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때 격치와 성정이 모두 성리학의 가치론(수양론)에 해당된다.<sup>107)</sup>

誠意正心の 수양론적 의미를 살펴보면, 격물치지의 문제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栗谷 자신도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의 문제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의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무릇 생각한다는 것은 격물치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른바 힘쓴다는 것은 성의정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물에 접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미 생각하여 얻었더라도, 내일 사물에 접하면 또한 생각을 면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격물치지의 공부를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미 힘써서 中道에 합하였더라도, 내일 또한 힘쓰는 것을

104) 「全書」, 卷20, <聖學輯要> : 盡萬事萬物 莫不有理 而人之一心 管攝萬理 是以無不可窮之理也 但開蔽不一 明暗有時 於窮格之際 或有一思而便得者 或有精思而方悟者 或有苦思而未徹者 思慮有得 渙然說豫 灑然有不可以言語形容者 則是眞有得也 若雖似有得而信中有疑 危而不安 不至於冰消凍釋 則是強揣度耳 非眞得也.

105) 「全書」, 卷20, <聖學輯要> : 又曰 今人 有知不善之不當爲 及臨事又爲之 只是知之未至 人知鳥喙之殺人 不可食 斷然終於不食 是眞知之也 知不善不可爲 而猶或爲之 是特未能眞知也.

106)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p.298.

107) 배종호, 한국 유학의 철학적 전개, p.270.

면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성의정심의 공부를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108)

이렇게 본다면 바깥 대상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고 시간적으로 오늘과 내일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격물치지와 誠意正心에 힘써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물이 그 극을 다하고 지식이 그 이를 데를 다 이르고, 뜻(意)이 그 정성을 다하고, 마음(心)이 그 올바름을 다한 사람은 聖人이요 격물치지고 성의정심하되 그 궁극에까지 이르지 못한 이는 君子요 --- 격물치지가 안 되어도 격물치지를 구하고, 성의정심이 안 되어도 성의정심하고자 하는 이는 학자이다.」 109)

格物致知와 誠意正心の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논리적인 면에서 철학의 문제로서 전자를 인식론이라고 본다면, 후자는 수양론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인식론과 수양론은 또한 하나의 수양 방법론이기도 하다.<sup>110)</sup>

이러한 格物致知의 근본원리를 살펴보면, 誠은 격물치지의 방법적 원리로서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 또는 ‘정성’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퇴계가 敬을 중시하는데 대해 율곡은 誠을 중시한다. 율곡은 中庸의 ‘誠이 아니면 物도 아니다(不誠無物)’는 말 그대로 일체 존재 전반에 誠을 적용한다.

立志 格物致知 氣質變化에 있어서 誠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말이다. 특히 格物致知에 있어서도 誠이 전제되어야만 眞知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음 율곡의 말이 잘 설명해 준다.

「한 마음이 참되지 아니하면 만사가 모두 거짓이니 어디에 간들 행할 수 있으며, 한 마음이 진실로 참되다면 만사가 모두 참된 것이니 무엇을 한들 이루어지지 않으리오」 111)

108) 『全書』, 卷9, <答成浩原> : 夫所謂思者 非格致而何 所謂勉者 非正而何. 事物之來 未能不思 而必思之. 今日既思而得矣 明日事物之來 又不免於思 則可謂格致之功已畢乎. 今日既勉而中矣 明日又不免於勉 則可謂誠正之功已畢乎.

109) 『全書』, 卷9, <答成浩原> : 物極其格 知極其至 意極其誠 心極其正者 聖人也 ; 格致誠正 而未造其極者 君子也 --- 未格致而欲格致 未誠正而欲誠正者 學者也.

110) 배중호, 앞의 책, p.210.

111) 『全書』, 卷21, <聖學輯要> : 一心不實 萬事皆假 何往而可行 一心苟實 萬事皆眞 何爲 而不成.

格物致知之 지식공부는 마침내 誠意正心의 실천공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格物致知 공부는 知之 문제라면, 誠意正心 공부는 行之 문제이다. 栗谷은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sup>112)</sup> 치국평천하의 근본 문제로 格物致知와 함께 誠意正心을 아울러 들었다.

栗谷에 의하면 格物致知를 하지 않으면 지혜가 이치에 밝지 못하고 誠意正心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치에 따르지 못하며, 지혜가 이치에 밝지 못하면 邪正과 是非의 분별을 못할 것이며, 마음이 이치를 따르지 않게 되면 어진 이를 써서 백성을 편케 하는 방법을 쓸 수 없는 것이다.<sup>113)</sup> 그러므로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수신의 두 수레바퀴요 날개라 할 것이다.

즉 格物致知는 天性 내지 天則을 밝히는 앎의 문제라면, 誠意正心은 이것을 行하는 문제로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sup>114)</sup>으로 眞知之 구현을 뜻하는 것이다.

「하늘에는 진실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氣化가 쉬지 아니하고 流行하며, 사람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工夫가 밝고 넓어 間斷이 없으니, 사람에게 실심이 없으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게 된다. --- 한 마음이 참되지 못하다면 만사가 모두 거짓이므로 어디 간들 행할 수 있으며, 한 마음이 진실로 성실하면 만사가 다 참된 것이니, 무엇을 이루지 못하랴」<sup>115)</sup>

라고 하여 이른바 實道(天道)·實心(人道)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성실이라고 보았다. 이와같이 誠은 하늘의 道이고, 이 誠을 온전히 하는 것이 사람의 道이다.

공자는 일찍이 ‘君子有三畏<sup>116)</sup>이라 하여, 군자는 天命과 大人의 聖人之言

112) 「全書」, 卷7, <陳時弊疏(壬午)> : 雖然欲捨格致誠正 而求治國者 終無是理.

113) 「全書」, 卷7, 같은 글 : 何則 不格致 則智不燭理 不誠正 則心不循理 不燭理 則無以辨 邪正是非之分不循理 卽無以施任賢安民之術 --- .

114)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pp.305-306.

115) 「全書」 卷21, <聖學輯要> : 天有實理 故氣化流行而不息 人有實心 故工夫緝熙而無間 人無實心 則悖乎天理矣 --- 一心不實 萬事皆假 何往而可行 一心苟實 萬事皆眞 何爲而不成.

116) 論語, 季氏篇 : 孔子曰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대순진리회요람은 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sup>121)</sup>

인간이라는 하나의 존재에도 중심이 되는 근원처가 있어 그곳에서의 작용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 행동을 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모든 사고와 언어행동의 근원은 마음에서 통제되는 것<sup>122)</sup>으로 대순사상에서는 수양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본질을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인간존재의 중심이면서 또한 천지의 중심이기도 하다.<sup>123)</sup> 이와 같이 마음은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주인이 된다.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마음의 靈이므로 수도에 있어서 자신의 심령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주께서도 布諭文에 「나의 구하는 것은 무량하고 지극한 보배에 있으니 지극한 보배라는 것은 곧 나의 心靈이다.」<sup>124)</sup>라 하시어 인간이 찾아야 할 진정한 것이 자기 마음의 깊은 영혼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셨다.

이와 연결하여 大學의 경우를 인용하여 「물건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마치는 것과 시작하는 것이 있으니 먼저와 나중을 안다면 도에 가까운 것이다.」<sup>125)</sup>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것에 있어 근본을 아는 것의 중요함을 깨우쳐주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마음과 神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다.

「心也者 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sup>126)</sup>

121) 대순진리회요람, 서울: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16.

122) 典經, 교법1장11절,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123) 典經, 교운1장66절,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124) 典經, 교운2장41절, 「吾之所求有無量至寶至寶即吾之心靈也」

125) 典經, 교법2장51절,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

126) 典經, 행록3장44절.

神은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그 善惡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수도인으로서 근본인 마음에 대하여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자기마음을 밝게 밝혀서 하늘로부터 누구나 부여받고 태어난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의 회복을 이룩해 수행의 실천적 원동력으로 삼는 각고의 자기성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저 성인의 경전은 문장의 색채를 구하지 않고 그 진리를 구하였으며 진인의 마음은 그 실상을 찾았지 껀꾸밈을 구하지 않았다. 물건의 사리를 구한다면 그 천연스러움을 찾는 것이지 조작을 찾는 것이 아니다.」<sup>127)</sup>

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의 색채, 껀꾸밈, 조작과 내적으로 표현되는 「眞理 實相 天然」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본질과 실제으로써의 진리, 실상, 천연이며 이러한 도에 대한 깨달음을 현실속에 一心力行해 나가는 성·경·신이 대순진리를 수도하는 수도의 법방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는 꾸밈을 버린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서 실천수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과 사심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天性 그대로의 本心이요 사심은 物慾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人性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道理에 어긋나게 되었던 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우리는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요 양심을 속이는 것은 바로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대저 天理는 돌고 돌아 되돌아오는 것이기에 자기를 속이는 것이 곧 남을 속이는 것이요 남을 속이는 것이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만다.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까닭은 반드시 마음속에 따로 어떤 것에 집착함과 사사로운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직과 진실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며 살피서 늘 조용하고 텅비고 밝아서 물욕에 가리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128)</sup>

127) 典經, 교운2장33절, 「夫聖人之經典不求文章之色彩而求其眞理眞人之心求其實而不求外飾求其物之事理則求其天然而不求造作也」(覺道文)

128) 「과오를 경계하기 위하여 옛부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sup>129)</sup>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라도 그를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인간의 마음가짐에 대한 귀감이 되는 가르침이다.<sup>130)</sup>

대순사상에 있어서 誠은 수양의 방법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교적 자세를 나타내며, 마음을 어떻게 지니느냐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그 종교적 성격을 부각시켜 修道의 要諦로 삼고 있다.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sup>131)</sup>

「宇宙壽命 至氣今至願爲大降 天地誠敬信」<sup>132)</sup>

복록도 誠敬信에 달려 있고 수명도 誠敬信에 달려 있다. 天地가 다 誠敬信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誠敬信 석자는 인간의 수양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내는 절대 가치의 개념이며, 수양이 극치에 도달했을 때 합치되는 진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sup>133)</sup>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sup>134)</sup>

것(自欺自棄)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 大巡指針, p.42.

129) 典經, 교법1장11절.

130) 「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 大巡指針, p.76.

131) 典經, 교운1장30절.

132) 典經, 교운1장66절.

133) 이경원, 大巡思想에 나타난 修養論 考察, 韓國 新宗教 研究의 諸問題, 99 韓國 宗教史學會 秋季學術大會 발표초록, p.73.

134) 典經, 교법2장37절.

cf) 典經, 행록1장29절.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 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四十九 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쪄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 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

誠은 늘 꿍임이 없고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하늘이 모든 사물에 부여한 참진리로서의 실체를 말하며 수도인에게 있어서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至誠이면 感天이라고 하듯이 수도생활에 항상 誠을 결부시킴으로써 상제님과 감응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바라는 바 소원도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sup>135)</sup>

천지간의 매사는 내가 행한 말이나 행동과 처사에 따라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제께서도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행록5장38절)이라 하시어 모든 일은 뿌린대로 되돌아 오게 됨을 말씀하셨다.<sup>136)</sup>

誠은 사람의 精·氣·神의 합일의 眞誠으로서 남의 간섭도 견제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스스로의 心定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나의 마음을 참담게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되는 것<sup>137)</sup>이다 하였다.

---

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135) 典經, 교운1장25절

「상제께서 정미년 가을 어느날 신 원일과 박 공우와 그의 몇 사람들을 데리고 태인 살포정 주막에 오셔서 쉬시는데 갑자기 우리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 집에 범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번개와 우리가 일어나는 쪽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곧 멈추는지라. 이 때 공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번개를 부르시며 또 때로는 꾸짖어 물리치기도 하시니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상제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좇을 것이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였더니 어느날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날 사람 만났으니」 라는 가사를 아느냐 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때마다 하는 그 식고(食告)를 나에게 돌리라」 하시니 공우가 감탄하여 여쭙기를 「평생의 소원이야. 깨달았나이다」 원래 공우는 동학 신도들의 식고와는 달리 「하느님 뵈어지소서」 하는 발원의 식고를 하였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남의 심경을 통찰하심이며 조화를 임의로 행하심을 볼 때 하느님의 강림이시라고 상제를 지성으로 받들기를 결심하였도다.」

136) cf. 「自誠으로 이루어 놓은 나의 誠塔은 남이 무너뜨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神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大巡指針, pp.41-42.

137) 대순지침, p.68, 先誠吾心 以誠他心 先敬吾身 以敬他身 先信吾事 以信他事.

“있는 말로 일을 꾸미면 천하가 부수려해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일을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나니라”하셨으니 무자기(無自欺)를 뜻하는 것으로서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여 暗室欺心하지 않는 것으로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

또한 말은 인간의 意思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기표현수단으로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일례를 통하여 말의 힘이 지대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말을 함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훈회에 「언덕을 잘 가지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말에 남이 호감과 존경을 가질 수 있게 德을 심는 것이다.

至誠은 진리의 여륜(如綸)이요, 不誠은 易理나 網罟의 자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으니, 이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도인들은 항상 大越上帝의 永侍의 정신을 가지고 수도에 임해야 한다..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지느니라(대순지침, p.75)하셨으며, 불일이이(不一以二)의 본심인 仁善의 自誠이 道誠의 定石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하므로(대순지침, p.51) 도인들은 성경신을 요체로 삼아서 위로 상제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회의 모든 人事가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대로 이룩되어 가는 진리임을 깊이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순지침, p.32)

이러한 誠의 의미는 이미 조상선령신들이 60년동안 공에 공을 들여 태어나는 인간<sup>138)</sup>이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계뿐만 아니라 신명계의 일들까지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상선령신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인간계에 태어난 존재체로서 誠之又誠하여 하늘이 필요로 할 때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sup>139)</sup>

138) 典經, 교법2장36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

139) 典經, 교법3장47절, 「一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

다음으로 一身만을 위한 誠·敬·信은 진정한 의미의 三要諦가 되지 않음을 종도인 차경석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誠敬信이 지극했던 차경석이 상제님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sup>140)</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명숙은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되어 조선명부가 되었다.」(교법1장2절).

상제님께서 「전명숙은 만고명장이라 백의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도다.」라 하시며 그 뜻을 높이 평가 하셨다. 이는 전명숙이 개인적인 야심이 아닌 「오로지 남을 잘되게 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거사했기 때문이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sup>141)</sup>

하신 말씀이 있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어떠한 욕심이나 사사로움에 치우치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진리에 지극한 신명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니 항상 道의 경위와 이치에 견주어 처사에서 無偏無私

人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

140) 典經, 공사2장19절,

「상제께서 十二月에 들어서 여러 공사를 마치시고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도다. 경석·광찬·내성은 대홍리에 가고 원일은 신 경원의 집으로 형렬과 자현은 동곡으로 떠났도다. 상제께서 남아 있는 문 공신·황 응중·신 경수들에게 가라사대 「경석은 성(誠) 경(敬) 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 고 일러주시고 또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이 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 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 보다 많아지리라. 풀어두어야 후천에 아무 꺼리낌이 없느니라」 고 말씀을 맺으셨도다.」

cf) 典經, 교운1장51절,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141) 典經, 교법1장29절.

하고 公明正大하여야함을 이르심이다.

이를 볼진데, 단순히 지극한 성경신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誠實이라함은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주체적 인간의 자세로서 해원상생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 2. 誠의 目的

大巡思想에 있어서의 修養論은 신앙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 大越上帝의 永侍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다음에서는 상제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誠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中庸과 栗谷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양론이 지향하는 바는 君子, 聖人으로 표현되는 인간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에서의 수양론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상제에 대한 신앙이 修養論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는 人尊과 道通眞境이라는 목적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선천시대의 법리적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고 모든 인사가 도의에 맞지 않아 원한을 파생시키고 이러한 원한이 삼계에 누적되어 현실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sup>142)</sup>는 인과적 구조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sup>143)</sup>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를 誠敬信을 다하여 받들고 실천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상제님을 믿고 지극한 정성으로 奉行해나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144)</sup>

142) 典經, 교법3장34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143) 줄고, 宗敎的 理想世界와 道通眞境, 大巡思想論叢 第5輯, 포천: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p.339.

144) 典經, 예시81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

상제께서 인간이라는 존재체에 한정하여 도통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한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다.<sup>145)</sup>

도통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요구조건이 제시되어진다. 이는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필수조건으로서 그것은 마음으로 규정 지을수 있다. 즉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서 도에 통하게 하신다는 것이다.<sup>146)</sup>

도전님께서도 도통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오직 우리 대순진리회는 성·경·신 삼범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으로 삼아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하고 무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하고 세기연질하여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하고 성지우성하여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를 정각하고 일단 활연 판통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이며 도통인 것이다」<sup>147)</sup>

상제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하늘이 복을 주기를 바라는 사고방식은 운수에 있어서는 아무소용이 없는 것이다. 수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 말은바 자

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

cf) 典經, 공사1장31절,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를 신으리라.」

145) 典經, 예시83절,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 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

146) 典經, 교운1장41절,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cf) 대순지침, p39.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

147) 대순진리회요람, 서울: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8

기 위치에서 지극한 성경신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후 상제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도주께서는 『다행히 이 세상에 한량없는 대도가 있으니 나의 심기를 바로하고 나의 의리를 세우고 나의 심령을 구하여 상제님의 임의에 맡기라. 한없이 넓고도 넓게 상제님께서 위에 계시고 광대하게 도주께서는 명을 받든다.』<sup>148)</sup>하셨으니, 『도수는 밝고도 밝아 사가 없이 지극한 공으로 무량한 극락 오만년 청화세계에 인도하신다.』<sup>149)</sup>라는 말씀을 새겨 『엄숙하라 나의 도우들이여 지극한 誠과 敬 극진한 信과 德을 가지라』<sup>150)</sup>는 말씀을 奉行해야 한다.

이는 곧 천지가 인간을 쓰는 때(天地用人之時)를 맞이하여 우리들이 後天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성찰과 誠敬信을 다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眞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私曲)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때에 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튕겨져 나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sup>151)</sup>

하셨다.

삿된 방법을 감행하는 것은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正氣는 물러가고 邪氣가 선동하여 虛靈이 되는 것이다.<sup>152)</sup> 도를 닦아 운수를 받는 데 있어서 진실되고 공명정대한 誠·敬·信의 진심갈력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48) 典經, 교운2장41절, 「宰於此世 有無量之大道 正吾之心氣 立吾之義理 求吾之心靈 任上帝之任意 洋洋上帝在上浩浩道主奉命」(布喩文)

149) 典經, 교운2장41절, 「明明度數 無私至公 引導乎無量極樂五萬年清華之世」(布喩文)

150) 典經, 교운2장41절, 「肅我道友 嚴我道友 極誠極敬 至信至德」(布喩文)

151) 典經, 교법 3장 24절

152) 대순지침, p.40

## V. 結論

이상의 논의에서 中庸의 誠者는 實理의 誠이며 大學의 誠其意, 論語의 忠信, 孟子의 反身而誠, 中庸의 誠之者는 實心の 誠이라는 것을 알았다. 天의 實理와 인간의 實心은 똑같은 誠일 뿐이다. 그러므로 實理와 實心이 서로 感通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주자는 '誠한 것은 나에게 있는 이치로서 성실하여 허위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율곡은 誠은 진실한 것이다.<sup>153)</sup>고 했다. 그는 또 대학의 말을 인용하여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sup>154)</sup>고 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참된 것 즉 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태도부터 참되어야 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나를 속이지 않는 동시에 남을 속이지 않는다.

대순사상에서는 誠을 늘 꿰임이 없고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늘이 모든 사물에 부여한 참진리로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인에게 있어서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수양론의 하나로서의 誠은 人尊과 道通眞境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마음 하나가 성실하지 못하면 만사가 모두 거짓된 것이며, 마음 하나가 진실로 성실하다면 만사가 모두 참된 것이라는 것에서 誠이야말로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임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무릇 誠이란 人間의 道德行爲인 倫理의 근원이다. 이 源泉에 도달하여 誠을 實現코자 하면 먼저 善을 擇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굳게 지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행해야 될 것이다.

誠이야말로 인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는 動因이다. 인간은 誠者 아닌 誠之者이다.

이러한 誠의 자세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며, 또한 삶의 의미를 규정짓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 개인과 국가 민족에 대한 긍지는 물론 개인과

153) 全書 卷19, <聖學輯要> : 誠實也

154) 「全書」, 卷21, <聖學輯要> : 誠其意者毋自欺也

민족의 주체의식도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도인들의 가장 큰 보배는 道를 믿는 마음에 있으며, 진실된 실천수행을 통하여 도통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수도를 함에 精誠이 없다면 神明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그것은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근본이 서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은갓 시련을 이겨 도통의 탑을 쌓을 수 있다. 바로 최선을 다해 人界에서의 수도를 극진히 하는 것이 每事不待自然來 즉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히 찾아오는 人間的 차원의 최상의 길이 될 것이다.

천지가 인간을 쓰기 위해 인간을 낳았으며 인간은 지금 우주가 서신사명하에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는 때임을 大悟正覺하여 다가올 후천선경까지 우리가 맡은 바 위치에서 誠之又誠하며 체계를 지켜 一心으로 和合團結하여 포덕에 힘쓸 때 상제님의 德化를 받게 되는 것이다.

덕을 펼쳤다는 것은 도에 대한 誠敬信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이며 계속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더욱 더 높여 나가면 자신이 밝아지고 척을 없애 해원상생의 진리를 점차 길이 터득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인으로써 일상의 모든 一動一靜을 올바르게 해원상생의 법리에 맞춰 나가야 道에 通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시각 모든 공간속의 매사가 대순진리가 아님이 없듯이 일심으로 상제님의 말씀을 새겨 항상 血食千秋 道德君子의 精誠으로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며, 精誠에 精誠을 다해 大道를 현창시키는 생활 하나하나가 성숙된 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修道는 남을 잘 되게 해 주고 타인과 원한이 없이 서로 和合하여 和平스럽게 살아가는 진리를 배워 실천하는 것이다. 웅패의 술을 내마음에서 모두 불태워버리고 聖人の 道를 바탕으로 마음을 닦고 영웅의 도략으로 상제님의 천지대도를 온 천하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誠이고 敬이며 信이다. 이 일은 우리 도인들이 司命으로 삼는 것이며 성스러운 職이고 業이다.

수도인으로서 맡은바 위치에서 수행해야될 직분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誠之又誠의 一心으로 수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구천상제님의 덕화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후천선경에 이를 수 있는 복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록과

수명이 모두 성경신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誠敬信을 다해 자기 직분을 이루는 것이 바로 흐트러진 천지인 삼계의 상도를 회복하는 기틀이 되는 것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1974.

-----, 大巡指針, 1984.

-----, 大巡眞理會要覽, 1969.

論語

孟子

大學

中庸

栗谷全書

性理大典

韋政通, 中國哲學辭典, 昨晨社, 1985.

신오현, 인간의 본질, 서울:형설출판사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서울:성대출판부, 1980.

배종호, 한국유학의 철학적 전개,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김용옥, 東洋學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통나무, 1987.

송석구, 율곡의 철학사상연구, 서울:형설출판사, 1991.

율곡사상연구원, 율곡철학의 연구, 1992.

노사광 著/정인재 譯, 중국철학사, 서울:探究堂, 1993.

유명종, 성리학과 양명학,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 한국사상사, 서울:이문출판사, 1995.

황준연, 율곡철학의 이해, 서울:서광사, 1995.

손인수, 율곡사상의 현대적 공간, 서울:다문, 1996.

윤사순, 한국유학사상론, 서울:예문서원, 1997.

오하라 아키라 著/이형성 譯, 범주로 보는 주자학, 서울:예문서원, 1997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율곡집, 서울:솔, 1997.

- 황의동,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1, 서울:서광사, 1998.
- ,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2, 서울:서광사, 1998.
-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楊組漢 著/황갑연 譯, 증용철학, 서울:서광사, 1999.
- 유승국, 東洋哲學論考, 成均館大學院東洋哲學研究室, 1974.
- 윤천은, 中庸研究 - 中庸의 率性修道論,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장숙필, 율곡 이이의 聖學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영경, 율곡의 道學思想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 율곡 이이의 인심도심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윤기봉, 宗教的 理想世界와 道通眞境, 大巡思想論叢 第5輯, 포천: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 이경원, 大巡思想에 나타난 修養論 考察, 韓國 新宗教 研究의 諸問題, 99 韓國宗教史學會 秋季學術大會 발표초록, 1999.